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20.2.3)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개편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포스코·현대제철 2분기까지 지속 인상 추진, 감산 불사 의지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포스코 전중선 부사장 “철강 구조조정 필요성 부인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진정 기대감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 포스코 현대 세아 동국 등 중국 현지법인 가동 일시 중단, 주재원 귀국 등
5. 금주의 자료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1.31)
2) 해운조선업 2019년도 동향 및 2020년도 전망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01.30)
3) 2020년 러시아 경제 전망 및 수출 유망 품목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1.30)

1.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개편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다

1월 31일 열렸던 포스코 컨퍼런스콜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재편 필요성, 또 그것을 추진함에 포스코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인 전중선 부사장은 사안의 미묘함을 감안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포스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 철강업이 현재 수요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수출장벽이 높아지면서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반면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과잉 유입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활로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한중일이 거의 단일 시장화하고 있는데 일본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하에 고로 3사로 재편을 완료했고, 중국은 아예 국가 주도로 대형 국영사 중심으로 대형화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 철강산업은 아직 출발점에도 서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구조조정은 문제가 터져서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므로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필요성, 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감과 지원이 같이 뒷받침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이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주축이라고 본다면 공정거래상 독과점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외국과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감과 지원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독일 티센크루프와 타타스틸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EU)가 반대하면 구조조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계기를 만들고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서는 본지가 누누이 강조해온 바 있다. 일본과 중국의 구조조정과 개편에 대해 그때마다 상세히 보도했다. 또 독일 티센크루프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또 그들 전문가들의 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실과 칼럼도 게재했다.

지금 세계 각 국들은 세계경제,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 단순한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지속 생존 발전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덩치를 키우고 아예 시장의 판을 새로 짜고 그 주인공이 돼야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러한 절박감으로부터 철강은 물론 조선, 자동차, 전자 등 대부분의 중요 산업에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그 선두에 서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조선산업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특히 철강산업에 있어서는 시장 자율이라는 주장만

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이 그토록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구조조정과 재편의 방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전 부사장의 지적처럼 구조조정과 재편은 문제가 터져서 진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 부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앞에서 끌고, 포스코 등 업계가 동참해 우리 철강산업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내고, 구조조정과 개편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원료탄…철광석 1주 만 약 10달러 급락 84.9달러, 원료탄 강세 지속 소폭 상승 162.7달러

철강재…포스코·현대제철 2분기까지 지속 인상 추진, 감산 불사 의지

철스크랩(고철)…단기 하락세 : 2월까지 지속, 2월중 저점 예상

◆ 철광석 원료탄 전망 : 철광석 1주 만 약 10달러 급락, 원료탄 강세 지속

1월말 현재.

중국 수입 가격 : 철광석(Fe 62%) 가격 84.9달러 하락, 원료탄(강점결탄) 162.7달러 상승

변동 폭

- 철광석 : 작년 말 대비 7.6%(7달러) 하락/중국 춘절 직전 대비 11.1%(11달러) 하락
 - *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연휴 및 가동중단 연장 수요 감소
- 원료탄 : 작년 말 대비 9.4%(14달러) 상승/중국 춘절 직전 대비 보합
 - * 호주 브라질 우기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중국의 재고확충 수요 집중

<포스코 현대제철 컨퍼런스콜에서의 전망>

1. 철광석

포스코

- 연간 전망 : 80~85달러
- 단기 전망 : 1분기 90~95달러, *3월 90달러
- 중국의 철강 생산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
- 호주 및 브라질 우기(12~3월) 대비 재고 확충 수요 증가
- 1분기 철광석 가격은 중국 항만 재고 추이에 따라 90~95달러대서 등락 전망

현대제철

- 계절적 비수기 철강 수요 둔화로 보합세 유지 전망
-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 자극.
- 공급량 변동 등에 따라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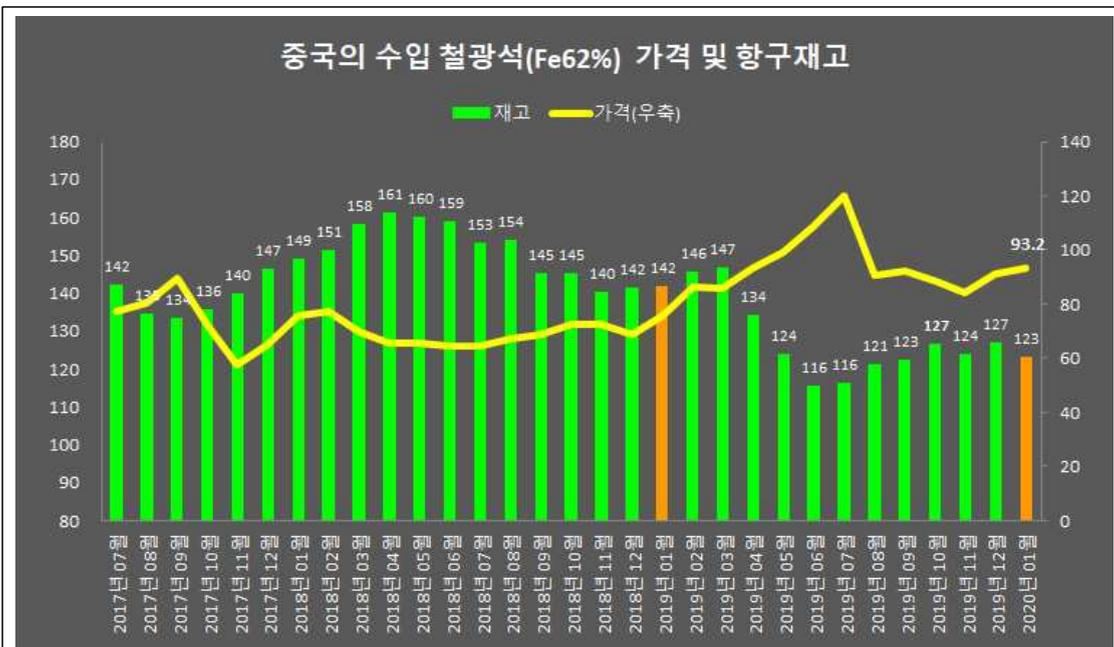
2. 원료탄

포스코

- 1분기 강점결탄 가격 150~160달러 전망
- 중국은 내수 가격이 수입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석탄은 연간 수입쿼터 갱신으로 수입 여력이 확보. 수입탄 수요 증가 전망
- 철강 경기 회복에 따라 석탄 수요는 반등 회복. 1분기 강세 예측

현대제철

- 중국 내 생산 감소 및 수입통제 완화로 단기 강보합세 예측



◆ 철강 제품 전망 : 포스코·현대제철 2분기까지 지속 인상 추진, 감산 불사 의지

1. 포스코 전망 및 협상 현황

1) 유통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

-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은 수요 회복보다 철강사 주도의 가격 인상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도 같은 현실. 포스코는 유통을 중심으로 인상을 추진.
- 단계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저점에서 2분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

2) 자동차 조선 등 실수요 인상 추진

- 2010년 4월부터 연간 협상은 종료. 분기별 인덱스 체계로 반영하고 있음
- 자동차 조선 등에는 가격 현실화를 요청할 예정. *원료 상승분 미반영분 3~5만원 예측
-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임

2. 현대제철 전망 및 협상 현황

1) 작년 4분기 가격 및 시황은 저점 판단.

2) 시장 상황은 좋지 않음.

3) 손익(연간 영업이익률 1.6%, 4분기 적자)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상 지속적 추진

※ 수익 개선을 위한 전기로 부문 감산 병행

1) 올해 판매 계획

- 고로재 1205만8천톤 전기로 932만톤 : 전년 대비 고로 30만톤↑ 전기로 23만톤↓
- 봉형강 수요 감소를 반영해 올해 사업계획 반영. 열연 박판은 적자로, 손익 악화의 원인이 됨.
- 전기로는 비가동 계획을 반영해 시황에 대응. 고정비라도 확보되면 가동으로 전환.
- 현대제철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평균 2천억원. 작년 2,3분기는 3천억원.
- 올해 2분기 이 같은 수준으로 정상화 전망. 4월 이후 정상적인 이익 발생 예상

*. 1분기 국내 가격 인상

1) 판재류 1월 2만원, 2월 3~4만원 계획

2) 봉형강 3~5만원 인상 실시

→ 현재 시장 안착되는 상황. 계획대로 반영시, 2분기 손익분기점 도달 전망

3) 자동차강판은 2월 상반기 협상 시작. 하반기는 8월 예정

4) 조선은 작년 3만원 인상, 올 1분기 3만원 인하 → 2분기 이후 인상을 재추진

◆ **철스크랩 : 단기 하락세 : 2월까지 지속. 2월중 저점 예상**

1. 터키의 수입 가격 급락

- 미국산 HMS No.1&2(8:2) 270달러 붕괴(1월 마지막주 평균 CFR 269달러)
: 1월 10일 305달러에서 35달러 이상 급락 (제품 시장 부진 원인)
* 현대제철 설 연휴 이전 미국 대형모선 4만5천톤급 287.5달러 계약(4월 도착)

2. 일본 동경제철 단계적 인하 3차례

- 동경제철 인하 : 1월 25일, 29일, 31일 500엔씩 총 1500엔 인하
- H2 가격 오카야마 해상 2만2000엔, 우츠노미야 해상 2만3500엔 전월대비 1500엔 하락
- * 글로벌 가격 하락 반영, 한국/동남아 시장 수요약세 및 제품시장 부진 반영
- * 현대제철 설 연휴 이전 2만6500엔 계약

3. 전기로 제강사 가격 인하기조. 소폭 단계적 추진

- 현대제철 포항공장 22일, 인천 및 당진공장 28일 1만원 인하. 세아베스틸 22일, 28일 인하 실시
→ 20일 이후 전 제강사들은 2만원 내외의 인하를 실시 : 비교적 완만한 진행
→ 글로벌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아직 낮은 수준이고, 특히 철근 등 제품가 인상 추진하고 있어 대폭적인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 대형 공급사들의 수출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세 지속

- 다만 기계약분 이행 및 단기급락을 반영 2월 중 저점을 다질 것으로 관측
- 3월 이전 성수기 진입을 대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차됨
- 철광석 가격이 90달러 내외, 최소 80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 철스크랩 가격만 계속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동향 (플래츠)

Deals

- + Cont 20' / Chile/ 90:10/ \$280/ CFR CGP/ 0.5kt (thu)
- + Cont 20' / Bra/ 80:20/ \$270/ CFR CGP/ 3kt (thu)
- + Cont 20' / HK/ Shred/ \$280/ CFR JKT/ 0.5kt (thu)
- + Cont 40' / US/ PNS/ \$290/ CFR JKT/ 0.5kt (thu)
- + Cont 20' / SG/ PNS/ \$315/ CFR JKT/ 0.5kt (fri)
- + Cont 20' / Eur/ Bushl/ \$317/ CFR JKT/ 0.5kt (tue)
- + Cont 20' / Eur/ Blue Steel/ \$305/ CFR JKT/ 0.5kt (fri)

Offers

- + **Bulk/ JP/ H1:H2/ \$255,260/ CFR TW**
- + Bulk/ JP/ H2/ \$271,275/ CFR s.VN
- + Bulk/ JP/ H2/ \$278,280/ CFR n.VN
- + Bulk/ HK/ 50:50/ \$277,282/ CFR n.VN
- + Bulk/ JP/ HS/ \$290,293/ CFR n.VN
- + Bulk/ JP/ HS/ \$290,293/ CFR s.VN
- + Bulk/ JP/ Shindachi/ \$305/ CFR n.VN

- + **Cont 40' / US/ 80:20/ \$245/ CFR TW**
- + Cont 20' / US/ 80:20/ \$262/ CFR JKT
- + Cont 40' / US/ 80:20/ \$250/ CFR JKT
- + Cont 20' / US/ Shred/ \$267/ CFR SUB
- + Cont 40' / US/ Bushl/ \$310/ CFR SUB
- + **Cont 20' / S.KR/ Bushl.Bund/ \$322/ CFR JKT**
- + Cont 20' / UK/ PNS/ \$300/ CFR JKT

[긴급진단] 코로나 피해확산, 철강 수급 가격 영향은?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7>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중국 춘절 연휴가 연장됐다. 교통은 제한됐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일인 16일로부터 28일까지 13일 동안 12개국에서 보고된 사망자는 132명에 달했다. 13개 도시에서 6000만명 이상이 격리 조치됐다. 중국은 상해와 장수성의 소주 인근까지 연휴를 2월9일까지 연장했다. 필수 품목군은 연장조치에서 제외됐다. 가스, 물, 전력, 통신, 의료기계, 제약, 슈퍼마켓, 식품 제조업 등이다.

물류통제, 철강수급 큰 영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공급은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2월은 연중 공급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도 하다. 우한시에는 바오산강철의 공장과 우한강철이 자리 잡고 있다. 연휴와 함께 철강사 재가동 시점도 연장된다. 우한시는 중국 내 철강 생산의 4%를 차지하는 6번째 규모의 철강도시다.

중국 전체적으로 생산 차질이 미미하더라도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 공급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목된다. 우한시는 양쯔강이 관통해 상해까지 연결되는 중국 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했다.

철강 수요도 함께 감소할 전망이다. 우한시에는 르노, 시트로엥 등 완성차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요타, GM 등이 공장을 폐쇄하는 등 핵심 수요산업의 가동도 일단 9일까지 중단된다. 글로벌 철강분석 기관인 CRU는 250만톤에서 30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철광석 원료 '급락' 철강재는 '안정'

공급 측면으로 볼 때 일시적인 부족 현상으로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중국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철강과 전후방산업의 침체로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로 제한된다.

당장 철광석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29일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CFR 톤당 86.2달러를 기록했다. 전주 마감일(23일) 대비 9.3달러(9.7%↓) 급락했다. 이에 비해 철강재 시장은 큰 변동이 없다. 아시아 시장은 한산하고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거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다. 열연(SS400) 가격은 CFR 톤당 500달러 수준에서 보합세에 있다.

사태 조기수습 시 급등 가능성 주목

코로나 사태가 철강 가격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에 비교적 힘이 실린다. 코로나 발생이 연휴와 겹쳐졌고, 수요를 견인하는 건설부문이 비수기 점에서도 영향은 제한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 철강사들이 가격 인상 의지가 높은 상태라는 점에서 현저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급등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휴 연장 기일인 9일까지 사태 수습이 가시화 되면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평가다.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활동이 빠르게 전개되고, 소재 확보를 위한 구매가 일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각 종 프로젝트가 재개, 계절적으로 산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전망이다.

◆ 아시아 및 중국 시황 : 춘절 연장 큰 변동 없음

	아시아 수입(CFR)		중국 오퍼(FOB)			한국향 오퍼(본계강철)		
	열연	철근	열연	철근	후판	열연(우)	냉연	GI
2019-10-28	438	429	434	422	462	468	513	583
2019-11-04	443	429	445	423	462	463	503	578
2019-11-11	451	436	454	431	462	468	528	593
2019-11-18	456	438	458	431	435	473	533	598
2019-11-25	461	439	459	440	435	483	543	608
2019-12-02	471	445	468	440	435	483	543	608
2019-12-09	483	451	478	446	435	488	543	608
2019-12-16	489	450	483	446	435	505	548	613
2019-12-23	483	450	478	446	466	515	565	625
2019-12-30	489	450	483	446	466	515	565	625
2020-01-06	492	458	485	451	474	515	565	625
2020-01-13	496	464	491	461	474	525	575	635
2020-01-20	496	462	500	465	474	520	575	635

◆ 국내 유통 가격

	열연(만원/톤)		중국 오퍼 (FOB)	철근 (만원/톤)		형강 (만원/톤)			국산 (만원/톤)		수입산 (만원/톤)	
	포스코대용재 (GS400)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중국산	국산 앵글 채널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2019-12-09	63	62	478	53	51	73	69	64	69	60	62	
2019-12-16	63	62	483	53	51	72	69	64	69	60	62	
2019-12-23	64	63	478	54	52	71	69	64	68	59	61	
2019-12-30	65	64	483	55	53	70	68	64	68	58	60	
2020-01-06	65	64	485	61	58	71	68	64	69	58	60	
2020-01-13	65	64	500	60	57	70	68	64	70	58	60	
2020-01-20	64	63	500	59	57	73	68	66.5	70	58	60	
2020-01-27	64	63	500	59	57	73	68	66.5	70	58	60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1.31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 (FOB)	현물	USD/bbl	58.45	▲0.69	1.19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 (CIF)	현물	USD/ton	454.81	▲0.51	0.11	월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 (도매가)	현물	KRW/ton	280,000.00	▲20,000	7.69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 수입가 (CFR)	현물	USD/ton	84.94	▼2.9	-2.19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 (FOB)	현물	USD/ton	152.29	-	-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570.00	▼51	-0.91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709.50	▼13	-0.75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2,675.00	▲140	1.12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2,219.00	▼17.5	-0.74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1,874.50	▲38.5	2.1	일간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글로벌 시황 이슈)

포스코 전중선 부사장 “철강구조조정 필요성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포스코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중선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부사장)이 31일 컨퍼런스콜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부사장은 “한국 철강업은 자동차나 수요산업이 부진하고, 수출장벽이 높아서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는 시장에 오버 플로우 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국 등에서 일어난 구조조정은 대형화를 골자로 추진됐다.

그는 “일본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민간 철강사들이 통합해서 고로 3사로 재편이 완료됐다”면서 “한국은 아직 출발점에도 서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은 문제가 터져서 하면 그 효과가 없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도 주문했다.

전 부사장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공감과 지원이 뒷받침 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통합 대형화가 한축이라고 보면, 공정거래상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과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계기를 만들고, 공론화 해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이차전지사업 포스코케미칼로 '수직계열화'

올해 양극재 4만4000톤 음극재 5만5000톤 체제 완성
포스코케미칼 생산능력 확충 및 품질개선 주력
포스코 장기적으로 이차전지사업 포스코케미칼로 일원화

포스코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은 이차전지 사업을 포스코케미칼로 수직계열화 할 계획이다.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은 31일 컨퍼런스콜에서 “포스코의 이차전지 비즈니스는 장기적으로 (포스코케미칼로) 일원화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포스코케미칼은 현재 음극재 생산능력 확충,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차세대 제품의 R&D, 리튬광산 염호 개발을 포스코가 같이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포스코가) 현물출자하거나 포스코케미칼로 매각하거나, 케미칼 중심의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이차소재전지 사업 중 양극재 및 음극재 공장은 상업화에 성공, 현재 대량 생산체제로 가고 있다.

양극재는 설비투자가 올해 4만4000톤 체제가 완성된다. 현재 구미 1만톤 체제, 광양 1단계 공장이 5천톤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건설 중으로 상반기 완료될 것이 2만4000톤 규모이다. 추가로 중국 절강에 양극재 공장 5천톤이 4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이 4만4000톤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완료되면 5만5000톤 체제가 된다. 현재 상용 생산이 되고 있다.

리튬 공장은 광석을 원료로 하는 리튬공장과 염호를 원료로 하는 리튬공장이다.

광석을 원료로 하는 공장은 광양에 가동중에 있다.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상용화 공장을 울춘에 4만톤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염호는 데모플랜트를 건설중으로 올 5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시험가동 이후 내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 할 예정이다.

양극재 및 음극재의 올해 판매는 총 6만톤으로 매출은 7000억원으로 3배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은 양극재는 3500톤, 음극재 2만톤을 생산했다. 총 2500억원 매출을 올렸다.

내년 풀생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매출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케미칼에서 음극재 양극재 매출 비중은 전체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바이러스 사태 진정 기대감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및 연이은 美 기업 실적 호조 발표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 WHO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가장 심각한 전염병에 대해 적용하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 하지만, WHO는 중국이 사태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향 여행 제한 언급은 하지 않아, 적절한 사태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는 하루. 전일 이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며 호조세를 이어나감.

30일 전기동(Copper)은 중국을 비롯한 각지에서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로 인해 가격이 더욱 하락하며 하루를 마감. 이번 중국 전염병 사태로 인해 중국이 장기간에 걸친 원자재 수입/수요 둔화에 이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쉽사리 감추지 못하는 모습. 전기동 가격은 전일 종가 이하 수준에서 머물며 \$5,600 레벨 이하로 하락하며 마감. 알루미늄(Aluminium) 가격 또한 작년 11월 이래 최저치인 3M \$1,728를 장중에 기록하며 소폭 하락하는 하루.

안전자산인 금(Gold) 가격은 어제에 이어 적극적인 매수 신호를 쫓아 10% 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하루. 하지만, 바이러스 사태 진정 추이에 따라 가격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

<글로벌 주요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중국경제 및 비철수요 타격 전망 (RTRS)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현지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번 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한편, ANZ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사스(SARS) 발생 당시를 참고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 산업 전반에 대한 2주간의 섯다운을 가정하면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의 더딘 재가동 정상화 진입을 감안할 때 전기동의 경우 약 십만톤 가량의 수요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GFMS, 작년 4분기 글로벌 금 수요 감소 불구, 가격 상승흐름 전망 (RTRS)

GFMS(로이터 귀금속시장 분석팀)에 따르면, 장신구, 바, 코인 등의 판매저조 및 중앙은행 매입물량 감소 영향으로 작년 4분기 실물 금 수요는 작년 同분기 대비 9% 감소한 509톤으로 추산된다고.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아시아 지역 주요국들에서의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겠으나,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세와 투자수요 개선에 힘입어 가격은 상승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평균 예상가격은 \$1,558로 제시하는 동시에 하반기 들어서는 \$1,700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WGC, 高價 영향 작년 글로벌 금 수요 다소 둔화 (RTRS)

WGC(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투자수요와 중앙은행 매입세가 소매 매입세 저조가 상쇄된 영향으로 작년 글로벌 금 수요가 전년 대비 1% 감소한 4,355.7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한편, 글로벌 금 공급의 경우에는 주로 리사이클링 공급물량 증가(11%)에 힘입으면서 전년 대비 2% 증가한 4,776.1톤으로 추산돼.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 포스코 현대 세아 동국 등 중국 현지법인 가동 일시 중단, 주재원 귀국 등
- 포스코·현대제철 2분기까지 제품가격 지속 인상 추진, 감산(減産) 불사 시사
- 포스코 2020년 매출 목표 연결기준 63조8천억원, 개별기준 30조원 목표, 투자비 6조원 예정
- 포스코 개별기준 2019년 매출액 30조374억원 0.9%↓, 영업이익 2조5864억원 이익률 8.5% 3.9%p↓
- 포스코강관 2019년 경영실적 악화, 매출 9167억원 2.5% 감소, 영업이익 100억원 43.8% 급감
- 하이스틸 매출 증가 흑자 전환 성공, 해외 시장 개척 수출 다변화로
- 동국제강 2월 7일 부, 일반형강 가격 톤당 4만원 인상 74만원(SS275 기준) 판매
- 강관 유통업체 현대금속 1월 30일 최종 부도
- 신화실업, 전현직 임직원 3명 85억원 횡령 혐의 '기소'
-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강구조 전문 리포트 발간
- 대한제강 녹산공장, 2월 일주일간 감산 결정
- 해외 : 일본제철 쿠레제철소 용광로 2기 휴지, 생산능력 10% 감축
글로벌 지표 터키 철스크랩 수입 가격 270달러 붕괴, 2월 중순 저점 의견 나와
중국 2019년 철강재 수출 6429만톤 7.3% 감소 불구 車강판 중심 판재류 수출 비중 60% 육박
일본 철강 유통시장 침체, '코로나 바이러스, 소비세 증세' 영향
철광석 중국 수입가격 29일 전주(23일) 대비 9.3달러 10% 급락, 원료탄은 강세 지속 162.7달러

인도 JSW스틸 돌비 제철소 고로 및 하공정 건설 9월 완공 생산능력 500만톤에서 1천만톤으로
 브라질 폭우 강타, 발레 광산댐 위기 경보 '격상', 1년 만에 대형 자연재해 발생 우려

2) 수요/연관 뉴스

- 부산시, 조선기자재 활성화 위해 LNG선 직접 건조 나서
- 현대위아, 유럽 북미 7천억원대 차 부품 수주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최대 집적지 경기 남부-충남 북부
- 오거돈 부산시장 르노그룹 로스 모저스 부회장과 간담회, 부산공장 생산 지속키로
-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 현대 쌍용 GM차 생산 차질, '중 부품 공급 중단'으로
- 대림산업 2019년 영업이익 31.2% 급증, 건설업종 최고 이익
- 삼성엔지니어링, 2조원 규모 사우디 가스저장소 공사 수주
- 일본 자동차 8사, 2019년 세계 생산 4% 감소 2755만대
-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저탄소 기술 공동 연구 거점 설립
- OPEC, 코로나 바이러스로 산유량 추가 감축 검토

3) 경제/산업 뉴스

- 31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91.80원 (전일 대비 ↑6.8원) 원/100엔 1093.09원 (↑0.45원)
-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성장률 연간 최대 0.2%p 하락 예측도
- 2019년 12월 산업 생산 1.4%↑...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
- 일본 2019년 무역적자 17조원, 對韓 수출규제 '역풍'도 한몫
- 중국 춘절 연휴 2월 9일까지 연장, 교통 제한 물류 통제 철강 수급에 영향 커
- 중국 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 수출계약 불이행 기업 보호 조치 돌입
- IMF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경제 압박' 공식 표명, 美 FRB 감시 중 금리 인하 가능성
- 주요 경제지표 (1.31.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12말	1.29	1.3	1.31	전일비	19말비
W/US\$	1,070.50	1,115.70	1,156.40	1,177.20	1,185.00	1,191.80	0.57	3.06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155.40	1,176.50	1,184.50	1,191.20	0.57	3.1
W/CNY	163.9	162.79	165.5	170.34	171.49	172.44	0.55	4.19
W/Y100	949.28	1,008.86	1,059.75	1,078.91	1,088.15	1,093.09	0.45	3.15
Y/US\$	112.77	110.59	109.12	109.11	108.9	109.03	0.12	△0.08
US\$/EUR	1.1927	1.1455	1.1194	1.1015	1.101	1.1023	0.12	△1.53
CNY/US\$	6.5426	6.8522	6.9848	6.9364	6.9364	6.9364	0	△0.69
* '19년 평균 환율: (W/US\$) 1166.1원, (W/¥100) 1070.7원								
* '20년 평균 환율('20.1.1~현재): (W/US\$) 1166.7원, (W/¥100) 1067.5원, 3시 30분 기준								
[유가.원자재]	'17말	'18말	'19.12말	1.28	1.29	1.3	전일비	19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67.27	58.57	59.37	57.76	△2.71%	△14.14%
WTI 선물 (\$/배럴)	60.42	45.33	61.06	53.48	53.33	52.14	△2.23%	△14.61%
동 (\$/톤)	7,157	6,018	6,156	5,715	5,698	5,621	△1.35%	△8.69%
알루미늄 (\$/톤)	2,242	1,881	1,800	1,745	1,733	1,723	△0.58%	△4.28%
* '19년 평균 유가: (Dubai) (Dubai): 63.55\$, (WTI 선물): 57.03\$								
* '20년 평균 유가('20.1.1~현재) (Dubai): 64.61\$ (WTI 선물): 57.83\$								
[주가]	'17말	'18말	'19.12말	1.29	1.3	1.31	전일비	19말비
KOSPI	2,467.49	2,041.04	2,197.67	2,185.28	2,148.00	2,119.01	△1.35%	△3.58%
-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54,296	88,182	65,899	71,052	7.82%	-
KOSDAQ	798.42	675.65	669.83	670.18	656.39	642.48	△2.12%	△4.08%
외국인순매수(억원, 기간중 ^{*)})	1,409	2,730	△2,816	511	△3,633	△4,398	21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1.31)

-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
- 우선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대도리 시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차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바로가기 :

<https://hri.co.kr:442/storage/newReView.asp?boardid=&column=&numIdx=30178&skin=&mode=&GotoPage=1&keyword=&firstDepth=1&fourthDepth=&secondDepth=0&sortBy=&thirdDepth=>

2) 해운조선업 2019년도 동향 및 2020년도 전망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01.30)

- 벌크선 해운업황은 2019년 중 변동성이 높았으며 평균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그침
-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선주들의 관망세로 27% 감소, LNG선과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모든 선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신조선가는 소폭 하락.
- 한국 조선업 2019년 수주량은 28.4% 감소하였고 수주액은 18.1% 감소
- 2020년 세계 신조선 시장은 하반기 이후 선주들의 환경규제 대응 수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약 25% 발주 증가해 한국 수주량 역시 약 11% 증가할 전망

*. 바로가기 :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ext8=PA01&menuid=007002001001&pagesize=10&boardtypeid=168&boardid=62095>

3) 2020년 러시아 경제 전망 및 수출 유망 품목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01.30)

- 2019년 러시아 경제는 1.1% 안팎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1%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4천억달러 규모의 2019~2024 국가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되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9년 한국의 대러 수출은 6.2% 증가했음. 2020년에는 국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인프라 건설, 의료산업 관련 상품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바로가기 :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Detail.do?pageIndex=1&no=2036&classification=7&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lassification=&searchKeyword=>